



허성주

1983 :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
1989 : 미국 뉴욕주립대 보철 전공의 수료

1994 : 치의학박사

1999 : 요테보리대학 방문교수

현재 :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조교수

상악전치부 결손환자의 국소의치에 의한 수복은 클래스프의 설치와 denture base의 노출에 의해 심미적인 관점에서 매우 불리하며, 최종결과가 환자들의 심미적인 기대치에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다. 그러므로 각 증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치료방법을 선택하면 우수한 심미결과를 얻을 수 있다

### 1. Denture base 유지부의 선택 및 형태 변형

전치부 국소의치 수복시 가장 심미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의치상이다. 의치상의 volume과 색상이 주위 연조직과 잘 조화되지 않으므로 smile line이 높은 환자들에서는 시각적으로 매우 비심미적으로 관찰된다. 잔존치조제의 흡수가 적은 경우, 의치상을 생략하고 레진인공치를 직접 연조직에 접합시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Resin base를 사용할 때에도 base와 ridge의 이행부를 얇게 조정함으로써 자연감을 얻을 수 있다.

### 2. 회전삽입로 설계

치아지지 국소의치에서는 회전삽입로를 설계하여 전치부 클래스프를 생략함으로써 심미적으로 우수한 국소의치를 제작할 수 있다.

### 3. Interproximal 클래스프 설계 (Dunn-Hart 클래스프 변형)

지대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설면에 위치되는 유지부 암을 생략하고 wrought wire를 상악 주연결 장치에 solder하여 지대치와 그 전방치아의 interproximal에 위치하여 유지부 기능을 담당한다. 설측에 wrought wire가 지나가므로 상하악 전치의 clearance가 충분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없었다. 그러나 이 부위를 framework 제작시 interproximal 부위에 process 모양의 유지부를 형성함으로써 우수한 심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.